

광주 치매환자 2만명 시대… 조기검진 강화

올 2만4321명 검진

확진 379명·인지저하 4569명

市 전국 첫 ‘치매재활병원’

1만여명 치료 이용률 높아

고령화 추세 매년 급증

치료관리 정책 확대키로

광주시의 치매환자 2만명 시대를 대비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낮 동안 가족을 대신해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치매 주간(晝間)재활 병원’은 1만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는 등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광주지역 60세 이상 노인 20만 8629명 중 치매 등록 환자는 남자 1185명, 여자 3623명 등 총 4808명(2.3%)이다.

하지만, 시는 고령화 등에 따른 치매유병률(60세 이상 인구 대 치매환자 추정수)이 9.39%인 1만959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우선 도입했으며, 2만

4321명을 검진해 4569명의 인지기능 저하자와 379명의 치매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뒤 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치매 조기검진에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협약병원이 힘을 보탰으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갑별검사 등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치매환자 확진자로 보건소에 등록할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확진돼 치료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이며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북구 유동 천주의 성요한 병원내에 치매 주간 병원을 운영중인데, 올해에만 1만1147명의 환자가 방문했을 정도로 성황이다.

해당 병원은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 토요일 오전 8시30분~낮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또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낮 동안 가족이 치매환자를 돌보기 어렵고 휴식이 필요한 경우, 재가 치매치료자 중 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환자를 치료 보호해 주고 있다.

2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간병중이라는 박지영(49·여·광주 북구)씨는 “낮 동안 치매 어머니를 돌봐주는 병원이 생기면서 간병도 다소 수월해 졌다”면서 “전국 치매가족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도 광주의 치매병원 사례를 무척 부러워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광주시 자체적으로 치매예방과 치료관리 정책을 추가·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림동 산동고 천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2면) 등 산동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이다. 다음달 6일 완공 예정이다.

25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고 천변 생활체육공원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잔디 심기 작업을 하고 있다. 북구는 예산 12억4800만원을 들여 산동고 천변에 야구장(3면)·축구장(2면)·축구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산 신품종벼 ‘전남 1호’ 내년 농가 첫 선

道 자체 육종 첫 조생종… 품종등록 후 보급

전남도가 개발한 신품종 벼가 내년 첫 선을 보인다.

25일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육종(育種)에 들어간 가칭 ‘전남 1호’를 6년 만인 내년 품종등록 후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벼 품종 개발은 농촌진흥청이 주도, 수실 종을 신규 육종했지만,

전남도가 자체 육종한 것은 처음이다.

전남 1호는 지난 3년간 실증재배를 거쳤으며 수확량, 병해충 내성, 밥맛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최우량

품종으로 조사됐다.

지역 적응성 재배도 고품과 장흥, 신안, 나주 등 도내 4곳(4ha)에 이어

수원, 익산, 밀양, 나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 심었다.

병해충에도 강하고 특히 이삭상태에서 발아가 잘 안 돼 강우 수확시기 강우(降雨)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품종은 전남도농업기술원 쌀 연구소가 자체 육종한 것으로 보통 12~15년 걸리는 기간을 꽃가루 배양 방식을 통해 5년가량 단축했다. 일본 품종인 ‘고시히가리’와 국내 중만생종인 ‘온누리’를 교배해 새 품종을 얻었다.

전남도가 조생종 품종 개발에 나선 것은 태풍 내습 전 수확이 가능한 데다 도서해안지역 특성에도 맞기 때문이다. 도내 조생종 벼 재배면적은 2만 1292ha로 전체 면적 17만1000ha의 12.4%에 달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일 준공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 가 보니

“자연경관 지키고 소득 올리니 ‘1석2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주민지원사업 1호’

10억 들여 마을회관·숙박시설·친수공간 조성

25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주민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마을 단장에 한창이었다. 청년들은 마을 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노인과 아이들은 마을 어귀에 새롭게 지은 마을회관과 휴게실을 쓸고 닦느라 분주했다.

이 곳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2014년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마을 어귀에 선 500년된 당산나무와 가을마다 찾아오는 반딧불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마을이 오는 27일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이하 무등산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에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을 조성하고 오는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환경·생태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노후화된 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0년 관매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다도해 해상 영산도까지 모두 9곳이 지정됐다.

10번째 명품마을로 지정된 평촌마을은 뒤로는 무등산, 앞으로는 증암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역으로 반딧불이와 다슬기 등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500년된 당산나무와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길, 무등산 수박과 집밥 두부정식 등 등 마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도 풍부해 해마다 적지 않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무등산사무소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평촌 명품마을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반딧불이를 활용한 마을 로고 및 디자인 개발과 장기비전 수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특산물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9월부터는 마을 어귀에 친수공간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모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편의 시설도 확충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나 휴게실 운영으로 얻는 수익은 다시 마을 복지 사업에 활용, 지속가능한 마을로 발전시킨다는 게 무등산사무소의 복안이다.

무등산사무소는 또 광주시 북구·전남교육원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협약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준석(54)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 사무장은 “도시민들이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나 증암천 반딧불이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먼저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halo@kwangju.co.kr

5·18유공자 생계지원비

전남도 10만원으로 증액

전남도는 내년부터 5·18 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비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다.

도는 5·18 당시 희생한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을 돕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하다가 2011년 8만원으로 인상했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교통부름이’와 ‘가사도우미’ 지원금도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생계비 지원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 564 가구 중 356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과 함께 교통부름이 및 가사도우미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명절 위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남산단 밤길 밝아진다

내년 말까지 5억원 투입

노후가로등 479개 정비

어둡기만 했던 광주 하남산단의 밤길이 밝아진다.

광주시는 “2014년 말까지 5억원을 투입, 하남산단 내 30년 이상된 노후 가로등 479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하남산단내 도로 가로등 1404개 중 925개를 정비했으나, 나머지 미정비 가로등의 노후화가 심각해 점등되지 않거나 조명의 밝기가 약해 야간작업이 빈번한 첨단가전산업, 자동차, 광산업 종사 근로자들의 통행 불안 호소가 이어졌다.

지난달 강운태 광주시장과 하남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도로 가로등 교체 건의됨에 따라 시는 실행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은 “노후 가로등 교체로 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하남산단 근로자의 야간통행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 하남산단은 1983년 12월 5967㎡ 규모로 조성돼 980개 업체 2만9234명이 입주해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루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유인메디카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옆 무례쥬트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